



무등산 바람재 활짝 핀 철쭉 봄비가 간간이 내린 9일 국립공원 무등산 바람재 등산로에 5월을 대표하는 철쭉꽃이 만개해 등산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I 2년... 매몰지 지하수 오염 심각

74곳중 40곳 염소이온 등 기준치 수십배 전남도 예산없어 수질관리 엄두도 못내

전남지역 AI(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74곳 중 40곳의 지하수가 복통을 유발하는 염소이온 기준치를 최대 109배 초과하는 등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은 먹는 물 기준뿐 아니라 생활·농업·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정부가 중국발 AI 공포로 검역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난 2011년에 조성된 AI 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실정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나주, 영암, 화순 등지의 AI 매몰지 74곳의 수질을 조사

한 결과 40곳이 ▲질산성질소(기준치 먹는 물~생활용수 등·10~40mg/L 이하) ▲암모니아성질소(0.5 mg/L 이하) ▲염소이온(250~500mg/L 이하) 등의 먹는 물 기준치나 생활·농업·공업용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중 11곳은 생활·농업·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돼 있었다. 또 기준치 이하의 매몰지 16곳에서도 총대장균군이 검출, 56곳은 아예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관측정을 통해 분석된 이번 조사에서 나주 동강면 일대 매몰지의 염소이온이 높게 나왔다. 동강면 장동리 한 매몰지에서 염소이온이 무려 2만7318mg/L가 검출됐고, 다른 매몰지에서도 1만2869 mg/L가 검출되는 등 장동리 일대 매몰지 7곳에서 염소이온이 1만mg/L 이상 나왔다. 전남도는 장동리에서 염소이온이 과다 검출된 것은 지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른 지역인 영암군 시종면 신화리의 한 매몰지에서도 염소이온이 9850mg/L가 나와 정확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매몰지에서는 질산성질소와 암모니아성질소 등도 많게는 5~50배 이상 검출됐다. 문제는 여수를 제외한 이들 매몰지 300m 이내에는 지하수 관정 54개가 있어 일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기업체 전원마을' 뜬다

기아차노조 담양 수북에 400세대 연말 착공
연금공단 진도에, 해남은 조선업체 입주 준비

“시골 마을에서 함께 살며, 같은 직장으로 출·퇴근한다.”
직장 동료와 의기투합해 시골 마을에 전원 주택을 짓는 ‘기업체 전원 마을’이 뜨고 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해 함께 출·퇴근할 수 있고, 생활 패턴이 같은 이웃과 느긋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어 지역 기업체 노조들이 잇따라 전원마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들도 한꺼번에 수백 세대의 귀촌인을 받아 들일 수 있어 ‘기업체 전원 마을’ 유치에 나섰다.
9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국민연금공단 등 기업체 노조와 동호회 등이 ‘기업체 전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담양군 수북면의 ‘침단문화복합단지’에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기아차 노조는 최근 ‘담양전원주택조합’을 만들어 입주를 희망하는 노조원 400여명을 모았다. 이들은 매달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꿈에 그리던 기업체 전원마을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차 전원마을’은 오는 5월 시행사를 선정, 이르면 올 연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5년 상반기에는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노조에서는 입주민을 위해 사내 출·퇴근 버스 운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박용준 정책고용 부장은 “담양전원주택 조합이 입주 희망자를 모으고, 조합원 설문 조사를 통해 전원마을 부지를 선정했다”면서 “향후 이 조합이 마을 조성과 운영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에 따르면 진도읍 산월리 산해뜰지구에서 서울 국민연금공단, 진도 명랑지구에서 해남 일대 조선소 종사자들이 입주 MOU를 체결하거나 준비 중이다. 또 광양 옥룡면 일대에 포스코 전원마을 추진을 타진하고 있고, GS 칼텍스, 한화케미칼 등의 기업 노조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과 입지 의향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흥 금산면 신평리, 구례 산동면 내산리 등지에 14개 전원마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삼성전자광주공장, 국민연금공단, 광주 지역 건축업 동호회, 경찰·교원·군인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전원마을 입주 홍보와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기업체 전원마을 유치에 나선 것은 많게는 수백세대의 귀촌이 이뤄져 인구 증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기아차 전원마을 부지 선정 과정에 담양군, 장성군(남면 덕진리), 함평군 (월야면), 나주시 (노안면) 등이 도시가스 공급과 도로·수도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사랑방·편집방·보육시설 설치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내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전남도는 기업체 전원마을 조성 과정에 마을 규모에 따라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시설 설치 등 10억~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세 감면과 농지전용 부담금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5·18 아카이브 설립추진위, '아 광주여...' 추모시도

'5·18 아카이브 설립추진위원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추가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진(전 국회의원) 추진위원장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김준태 시인의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추모시 등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추가 등재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 전 의원을 비롯한 정춘식 (사)5·18 민주공공자유추진위원장, 김공후 (사)5·18 구속부상자회 부회장, 조비오 신부가 참석했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온 국민이 지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함께 부른 노래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 노래의 의미를 훼손하고 퇴색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영원히 후손들에게 전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약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후원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하나 자연사랑 푸른음악회
2013년 5월 11일(토) 오후 3시 | 국제정원박람회장 잔디마당

출연진 | 씨스타 · 김범수 · 김수희

본 공연은 무료공연이며, 선착순 입장입니다(단, 박람회 입장권 유류입니다)
약천후시 공연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행사 당일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